



2014 광주비엔날레 제시카 모건 총감독이 추천한 중국 작가 경 지안의 작품 ‘쓸모 없는’.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 작품 꼭 보세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제시카 모건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의 추천작 10선

2014광주비엔날레가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는 38개국 103개 팀의 작가들이 참여해 모두 111개의 주제로 413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2년 동안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제시카 모건 총감독이 추천하는 작품 10선을 소개한다.

◇임민욱 ‘내비게이션 아이디’=3일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펼쳐진 대규모 오프닝 퍼포먼스다. 경북 경산과 경남 진주에 방치되어 있는 피해자 유골이 담긴 컨테이너 2개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마당까지 호송하고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 및 진주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가족을 오월어머니회에서 맞이한다. 헬리콥터, 컨테이너, 유가족을 태운 버스 등이 항공으로 촬영되며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비디오 채널로 생중계됐다. 호송 장면과 퍼포먼스 등은 전시 기간 1전시실에서 비디오 프로젝트로 감상할 수 있다.

◇우르스 피셔 ‘38 E. 1st ST’=429㎡(130평) 대작으로 우르스 피셔의 가상 집인 ‘38 E. 1st ST’는 작가의 뉴욕 아파트를 실제 규모로 재창조한 작품이다. 극사실주의 벽지를 사용하면서 집의 내부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3전시실에 설치된 우르스 피셔 작 가상의 집 입구에서 관객을 안내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프랑스 출신 피에르 위그의 ‘네임 아나운서’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경 지안이 ‘쓸모없는’=작가는 중국 상하이에서 3일 동안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사용했던 물건 500여개를 수집했다. 작가는 투명한 아크릴 상자



작품 설명하는 제시카 모건 총감독

안에 그 물건들을 전시하며, 이 물건들에서 쓸모가 없어진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가구, 주방용품 등이 포함된다. 그의 작품은 갈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일상생활의 사물들이 속한 현대의 물질문화의 속도를 반영한다.

◇알로라&칼사디아 ‘음계(기질)와 늑대’(매주 토·일 낮 12시~오후 6시 4전시실)=이 퍼포먼스는 사회적 조율과 사람의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60명 퍼포머가 관객들을 악수로 맞이한다. 퍼포머들은 요리사·해어 디자이너 등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가진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다.

◇정금형 ‘심폐소생술 연습’(4일 오후 3시, 5일 오후 4시 비엔날레 거시기술)=도발적인 육체 예술가로 불리는 정금형 작가의 전위적인 누드 퍼포먼스로 인간의 몸과 인형의 소통을 테마로 한 실험적인 공연이다. 오브제와 이를 조종하는 배우의 몸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우러져 독특한 공연을 만들어낸다.

◇스튜어트 우 ‘보안창틀’=‘무제’ 등의

조각들은 작가가 거주하는 뉴욕에서 계토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안문의 형태에서 가져왔다. 융접한 스크린은 미술관 건축에서의 미니멀리즘에 기인하며, 도시 환경, 번두리 클럽, 무단 출입, 1980년대 후반 경제 위기로 인한 불법 무단 거주에 기반 한다.

◇이불 ‘수난유감-당신은 내가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 인줄 알아?’=이번 전시에서 영상으로 선보이는 ‘갈망’(1989), ‘낙태’(1989)는 이불의 초기 퍼포먼스 작업이다. ‘갈망’, ‘수난유감-당신은 내가 소풍 나온 강아지 새끼 인줄 알아?’는 작가가 과일 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의상을 착용하고 한국과 일본의 거리를 다닌 퍼포먼스다.

◇나우루스 라미레스 피구어로 ‘에렌디아를 위한 소풍’=작가는 멀티미디어 작품을 통해 셰슈얼리티, 식민정지, 미술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조국을 떠나게 만들었던 과테말라 시민 전쟁과 같은 이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에이이에 브론슨 ‘팔각정 창작 스튜디오’=팔각정 1~3층에서 라이언 브루어, 리처드 존 존스, 정연준 등 젊은 세대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전시된다. 몸, 영혼, 섹스, 공동체, 죽음, 마법 등의 주제와 더불어 셰슈얼리티와 급진적 주체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에드워드 킨홀즈&낸시 레딘 킨홀즈 ‘오지만디아스 페레이드’=사회의 구성요소들을 대표하는 형상들을 화려한 색과 밝은 빛으로 장식했다.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차 부식되어가는 형상들을 볼 수 있다. 선동과 공포가 더 이상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풍자를 담아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 국악 실내악단 ‘율’·현대무용단 ‘LDP’ 일본 공연

광주시, 중국 취안저우시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개최하는 ‘2014 한·중·일 예술제’가 4일 일본 요코하마시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와 함께 열린 ‘한중일 예술제’를 계승한 것으로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가 간 순회 문화교류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시를 대표해 전통국악 실내악단 ‘율’, 현대무용단 ‘LDP’(Laboratory Dance Project)가 출연한다. 중국에서는 취안저우시의 이원극과 남소림사관법이 무대에 올려

2014 한·중·일 예술제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려

진다. ‘율’은 관악합주 수제천, 피리독주곡 상량산곡이를 연주하고 광주여대 박선옥 교수와 살풀이 춤을 협연한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는 ‘미디어사군자’를 펼쳐보인다.

현대무용단 LDP는 한국의 힘과 에너지 보여주는 역동적인 현대무용 ‘NO Comment’를 공연한다. ‘NO Comment’는 2002년 초연 후 지금까지

100여 차례 해외공연을 통해 관람객과 평론가의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요코하마시는 동아시아문화도시 2014 요코하마시의 홍보대사인 덴파구미의 축하공연과 산카이 주쿠, 곤돌스 등 일본을 대표하는 무용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동아시아문화도시시는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에 따라 선정된 한국,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로, 이들 도시는 올해부터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극장 ‘자유의 언덕’ 등 독립영화 3편 개봉

‘야간비행’ ‘하늘의 황금마차’

광주극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4일 한국 독립영화 3편을 개봉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 ‘자유의 언덕’은 인생에 중요했던 한 여인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 서울에서 보낸 며칠을 다룬 작품으로 베니스,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일본의 연기파 배우 가세 료가 주연을 맡았으며 문소리·서영화·김의성·윤여정·기주봉·정은채 등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던 이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국인 최초로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지슬 : 끝나지 않은 세월2’ 오벌 감독의 신작 ‘하늘의 황금마차’도 같은 날 개봉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하늘의 황금마차’는 치매에 걸린 큰형님의 제안으로 제주도를 여행하게 되는 4형제와 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지난 8인조 밴드가 출연하는 작품이다. 돈 스파이크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했으며 ‘동백 아가씨’ 등을 새롭게 리메이



홍상수 감독의 신작 ‘자유의 언덕’

크했다.

‘야간비행’은 어릴 적 둘도 없는 친구였던 모범생과 문제아가 서로 다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우정을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 받았다.

이승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모델 출신인 곡시양, 이재준이 첫 연기에 도전했다.

추석 명절 기간 ‘죽구왕’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그 사람 추기경’도 함께 상영된다. 시간표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inmagwangju) 확인.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다인’ 향우당 윤명희 초대전

잠월미술관 ‘함평천지에서 열정과 고집’

함평 잠월미술관이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례 기획전 ‘함평천지에서 열정과 고집전’이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이 전시에는 함평 천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작가들이 자신들의 고집과 열정을 녹여낸 작품들이 소개됐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화가이자 제다인(製茶人)으로 살아가고 있는 향우당(香友堂) 윤명희씨가 초대됐다.

작가는 함평과 영광 경계에 있는 군유산 자락을 터전으로 삼고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윤씨의 작품 속에는 군유산의 장대한 자락과 사시사철 변화는 모습이 담겨있다.



전시 작품들은 먹과 색의 조화가 담긴 수묵화와 수묵채색화 그리고 야생꽃차와 다도에 관한 공예품들이다.

먹의 잔향이 아스라이 퍼지는 작품들은 작가가 손수 지어낸 꽃차의 향기와 어우러진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황홀’은 광주서예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캘리그래피대전 ‘대상’ 수상작으로 군유산 자락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차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을 애잔했다.

전시 오픈은 6일 오후 3시로, 작품 감상과 함께 작가가 직접 만든 차를 시음할 수 있다. 문의 061-322-6710.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